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애가 3:22-23)

겨울이면 약간의 쌀쌀함을 느끼고 지나갔던 멕시코였지만, 이제는 제법 심한 추위로 인해 학교를 임시 휴교까지 하는 이상기온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있음에 감사
가 있고,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예비하는 삶에 조금도 지체함이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회에 선교지 소식을 전합니다.

<10주년을 기념하며...>



선교지에 첫 발을 내딛은지 16년, 한 번
의 교회 개척의 실패 이후에 다시금 시도해
개척한 교회가 어느덧 창립 10주년을 맞이
하여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교
회에 초청되어 온 VIP들을 포함해서 120여
명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었고, 본 교회에 와 예수님
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
게 본이 되고 있는 청년, 하비엘 우레냐 형
제가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고자 신학교에
입학하는 날이기도 하여 우리에게 큰 격려
와 특별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교
지에서 감사와 기쁨, 감격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이고, 또한
지금까지 함께 동역해 주신 기도와 후원때
문이기에 마음 깊이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 대하는 것처럼...>

간질로 오랫동안 고생하며 예배를 드릴 때도 이따금 발작
증상을 일으키기도 했고, 때론 청년들 사이에 따돌림을 받아
자신을 더 나타내기 위해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했던 청년
파니(Fany)가 이번 달에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주님께로
가기 바로 전 주일에도 “목사님!”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안기
며 인사했던 자매였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에 맞
추어진 시간에 약을 먹기 위해 일어나야 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 주님 곁으로 간 것
입니다. 같은 시간 비행기에 몸을 싣고 사랑하는 파송교회
목사님께서 오신다는 반가운 소식에 뵙기 위해 여정을 출발
하는 길이었기에 자매의 소천 소식은 더 없이 큰 아쉬움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질문은,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지, 마지막 만남인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을까?’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작년에도 두 명의 형제가 주님께로 갔습니다. 올해는 한창 젊은 청년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갈 때 더 깊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만남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도록>



1999년, 멕시코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언어공부를 시작하며 지역답사와 함께 멕시코를 마음에 품고 지낸지 거의 20년, 가족과 함께 선교지에 온지 16년 가까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로 인해 감사가 있습니다. 처음엔 막막한 듯 시작한 사역이었지만, 영혼구원을 통해 세워진 섬기는 교회와 본 교회를 통해 후원하며 세워져가고 있는 선교지 교회들을 생각하면 주님의 열심, 신실하심과 은혜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올해는 유난히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월에 경험한 도둑 사건은 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멕시코 치안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했는데, 8월에는 인디언사역을 위해 마을에 들어갔다가 누에바 헤네라시온 마피아의 감시내지 보호(?)가운데 사역을 했던 일과 사역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총기로 위협하며 차량을 멈춰세운 세타스 마피아의 위협까지 경험하며... 11월 둘째 주에는 멕시코 북부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열린 멕시코 목회자 전국친교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 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이 없음을 알기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더욱 집중하기 소원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동역자들도 지속적으로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교지 소식과 더불어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사랑의 안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2. 가족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사역의 필요가 채워져서 지속적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 가족들에게 있는 두려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라지도록
3. 산타 바바라 마을 믿음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부지구입과 예배당 건축의 필요를 위해
4.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지속적으로 주께 인도하며, 또한 멕시코 현지 목사님들을 섬길수 있도록

멕시코에서 2018년, 12월에...

추기성, 정지연선교사드림